

제36강 바른 우리말 쓰기

1) 잘못된 문장

우리는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문장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신문이나 광고 문에서 구체적인 잘못된 문장을 찾아내 고쳐 보았다. 이러한 표현은 논술 문장에서도 자주 나타나므로 문장 고치기 공부는 논술 지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훈련을 자주 하여 우리말을 바르게 써야 한다.

문장 수정

1. 반면에 열린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반면에 열린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불참해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 실제로 이 안건들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 실제로 이 안건들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3. 팔짱 낀 채 한나라당의 백기항복을 요구했을 뿐 설득이나 대화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 팔짱을 낀 채 한나라당이 백기항복하기를 요구했을 뿐 설득하거나 대화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4. 갈등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게 정치의 몫이다.

⇒ 정치는 갈등을 수렴하고 조정해야 한다.

5. 첫째로, 이제는 북한 인권과 남북 화해 문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인정하자.

⇒ 첫째로, 이제는 북한 인권과 남북 화해 문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

6. 둘째로 이제부터 ‘인권’ 진영과 ‘평화’진영은 서로 공존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둘째로 이제부터 ‘인권’진영과 ‘평화’진영은 서로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세계 5대 갯벌인 새만금 갯벌의 가치를 무시한 무분별한 개발에 아우성치지 않는 우리 국민은 살아 있는지 묻고 싶다.

⇒ 새만금 갯벌은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세계 5대 갯벌이다. 이 가치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는데도 우리 국민은 아우성치지 않는다.

8. 홍콩 원정시위대가 불법 폭력시위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시위대원들의 변호사비와 생활비, 옷값, 면회가족의 여행경비를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었으나 거절했다고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 홍콩 원정시위대가 불법 폭력시위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시위대원들의 변호사비와 생활비, 옷값, 면회가족의 여행경비를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거절했다고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9.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행태를 보면 북한과 김 위원장이 얼마나 종잡기 힘든 존재인지가 실감된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행태를 보면 북한과 김 위원장이 얼마나 종잡기 힘든 존재인지 실감할 수 있다.

10. 국가 지도자의 정상외교 일정 전체가 이렇듯 수수께끼에 묻혀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나라도 없다.

⇒ 국가 지도자의 정상외교 일정 전체가 수수께끼에 묻혀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나라도 없다.

11. 김 위원장의 비밀 방문이 신변에 대한 위해를 두려워해서라고 해도 그것은 세계에 시대착오적 국가의 시대착오적 리더의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 김 위원장의 비밀 방문이 신변에 대한 위해를 두려워해서라고 해도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시대착오적인 리더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12. 북한의 유일한 혈맹국가라는 중국은 그 혈맹국을 위해서라도 이런 시대착오적 외교 행태를 정상화하도록 충고할 일이다.

⇒ 북한의 유일한 혈맹국가라는 중국은 그 혈맹국을 위해서라도 이런 시대착오적 외교 행태를 정상화하도록 충고해야 한다.

13. 미국은 연일 고위 당국자들이 나서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유통은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미국은 연일 고위 당국자들이 나서 북한이 위조지폐를 제조하고 유통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14. 청소년들에게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100점 만점에 52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들에게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시장경제 원리를 인식하는 수준이 100점 만점에 52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문제는 잘못된 경제교육의 폐해가 개인의 경제적 성취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국민 경제의 발전마저 저해한다는 것이다.

⇒ 문제는 잘못된 경제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성취를 가로막고 국민경제의 발전마저 저해하고 있다.

16.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것은 무리수였다.

⇒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것은 무리한 행동이었다.

17.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이 마비된다.

18. 대통령의 장관 지명이 여당에서까지 이렇게 비난받는 것은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다.

⇒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는 데 여당이 이렇게 비난한 적은 없는 것 같다.

19. 그의 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 의혹은 모두 사실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 그의 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 의혹은 모두 사실로 명백히 드러났다.

20. 윤리의 뒷받침을 받은 생명공학은 세계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 생명공학은 윤리가 뒷받침되어야 세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21. 그렇다고 무얼 망치거나 경제의 기본을 엉망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 그렇다고 무언가를 망치거나 경제의 기본을 엉망으로 만들지도 않았다.
22. 특허로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원천 기술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 원천 기술이 특허로 보호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23. 6월이 오면 독일 월드컵이 열린다.
⇒ 6월이 되면 독일 월드컵이 열린다.
24. 파격적인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단 3일 간의 쇼핑 찬스
⇒ 파격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단 3일 간의 쇼핑 찬스
25. 건설업체 부도 건수가 급증, 지방 경제의 목줄을 죄어 버렸다.
⇒ 건설업체 부도 건수가 늘어나 지방경제가 어려워졌다.
26. 여야는 갈수록 대선 정치에 눈에 팔리게 돼 있고, 국민과 대통령사이의 말길이 트일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게 2006년 정치 상황인 셈이다.
⇒ 2006년 정치 상황은 여야는 갈수록 대선 정치 상황에 눈이 팔리고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는 대화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27. 일이 이렇게 굳어진 만큼 이 정부는 이제 수도 이전 추진을 위해 객관적 사실조차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오던 자세를 벗어나서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을 들여 건설하는 행정 중심 도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냉철한 판단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 정부는 수도 이전이 확정되었으므로 객관적 사실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정 중심 도시는 많은 세금을 들이므로 성공적으로 건설되도록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28. 그러므로 인류 세계에는 새로운 생활 원리의 발견과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 그러므로 인류는 새로운 생활 원리를 발견하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29. 재정부로서는 실로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 재정부에 뼈아픈 지적이 되었다.
30. 정동영 전 장관은 5~8% 정도의 지지도로 모든 조사에서 4위였다.
⇒ 정동영 전 장관은 모든 조사에서 4위로 5~8% 정도의 지지도가 나타났다.
31. 학생의 특성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의 가장 기본 원리이다.
⇒ 교육의 기본 원리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있다.
32. 무원칙하고 부도덕한 정부의 법집행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다.
⇒ 정부는 무원칙하고 부도덕한 법집행으로 불만을 사게 한다.
33. 정치권의 '진보'가 죽을 쑤고 있는 요즘, 한국의 '보수'는 패재를 있을지 모른다.
⇒ 요즘 정치권의 '진보'가 실패하고 있어 한국의 '보수'는 기뻐할지 모른다.
34. 이들에게선 도대체 사양의 덕목이라는 건 눈을 씻고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었

던 것이다.

⇒ 이들에게선 사양하는 덕목을 찾을 수 없었다.

35. 천호식품 ‘통마늘 진액’은 일체 다른 재료를 첨가하지 않은 통마늘 100%의 고순도 진액이다.

⇒ 천호식품 ‘통마늘 진액’은 통마늘 100% 고순도 진액으로 일체 다른 재료를 첨가하지 않았다.

36. 냄새 예방을 할 수도 있고

⇒ 냄새를 예방할 수도 있다.

37. 건조한 가을철에는 건강한 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 건조한 가을철에는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8. 여야가 각자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국의 모습은 새해 들어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 여야는 새해 들어서도 각자 제 갈 길을 지속적으로 가겠다고 한다.

39. 그의 문학은 패관기서를 따르고 고문은 본받지 않았다하여 하마터면 ‘열하일기’가 촛불의 재로 화할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다.

⇒ 그의 ‘열하일기’는 패관기서를 따르고 본받지 않았다 하여 태워질 뻔했다.

40. 문제는 국정 홍보 책임자들이 이를 실행하기는커녕 정반대에 나가는 데 있다.

⇒ 문제는 국정 홍보 책임자들이 이를 실행하지도 않고 반대하는 데 있다.

41. 서류까지 조작하는 군 의료 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기강해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군 의료체계는 서류를 조작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기강이 해이되어 경악할 일이다.

42.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달 보험수가 인상 명분(정비수가)으로 보험료를 3% 인상했었다.

⇒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달에도 정비수가가 인상되어 보험료를 3% 올렸다.

43. 외래문화도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비로소 민족 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가 있는 것이다.

⇒ 외래문화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이바지하므로 뜻이 있고, 그래서 비로소 민족 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가 있다.

44. 원효는 모든 승려들이 귀족 중심의 불교로 만족할 때에 스스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배움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꺼리지 않는 민중불교의 창시자였다.

⇒ 원효는 민중불교의 창시자로 모든 승려들이 귀족 중심의 불교로 만족할 때에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전도하였다.

45. 윤 비서관은 ~ “개각 전후에 실시한 어느 여론 조사를 보면 유 의원의 입각에 대해 20대에서는 67%, 30대에서는 49%가 긍정적이어서 일정한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인물임을 보여 준다”고 했다.

⇒ 윤 비서관은 ~ “개각 전후에 실시한 어느 여론 조사에서 유 의원이 입각한 데

대해 20대는 67%, 30대는 49%가 긍정적이어서, 여론을 반영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46. 태초의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의 은하 등은 또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주의 진화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 어떤 것이 맞을까. 고등과학원 박창범 교수팀은 이를 밝히는 데 도전했다.

⇒ 고등과학원 박창범 교수팀은 태초의 우주모습과 지금의 은하가 생겨난 방법을 밝히고, 우주의 진화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 어떤 것이 맞는가를 밝히는 데 도전했다.

47. 미국 뉴욕시가 대중교통 파업 이틀째인 21일 파업을 끝내기 위해 파업 지도부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 미국 뉴욕시가 대중교통 파업 이틀째인 21일 파업을 끝내게 파업 지도부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48. 농협은 중앙회 점포수만 917개에 달하는 등 탄탄한 지점망을 갖추고 이로써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경우 다른 금융사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농협은 점포수만 917개에 달하는 등 탄탄한 지점망을 갖추고 있다. 공격적으로 영업할 경우 다른 금융사에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49. 최근 황우석 교수 연구팀은 과학 기술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을 한꺼번에 두 개나 열어 버렸다. 바로 연구 윤리 위반과 논문 조작이다.

⇒ 최근 황우석 교수 연구팀은 연구 윤리를 위반하고, 논문을 조작하여 과학기술의 존엄성을 두 번 훼손하였다.

50. 몇 년 전부터 회자되는 이공계 기피 문제는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국민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큰 위기다.

⇒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국민은 몇 년 전부터 회자되는 이공계 기피 문제가 큰 위기라는 것에 모두 공감한다.

51. 특히 국민 입은 상처는 그 무엇보다도 큰 손실이며, 과학 기술계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기는커녕 실망과 배신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가슴 깊이 사죄해야 한다.

⇒ 특히 국민이 입은 상처는 무엇보다도 크며 과학 기술계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실망과 배신감만 준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해야 한다.

52. 정치의 해가 시작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을까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

⇒ 정치의 해가 시작되면서 국민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53. 야당 없이 처리했다는 예산을 보라. 여당의원들은 민원성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2200억 원이나 증액시키지 않았는가. 야당이 없는 틈에 동네잔치를 벌인 꼴이다.

⇒ 야당 없이 처리했다는 예산을 보면 여당의원들은 민원성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2200억 원 증액시켰다. 이는 여당끼리 잔치를 벌인 꼴이다.

54. 대통령이 여당의 자리매김을 마치 '아랫것'처럼 취급한 것이야 그들 내부의 일이라 치자. 그러나 정치를 회화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 '권위주의 타파'인지 묻고 싶다.

⇒ 대통령이 여당의 자리매김을 '아랫것' 취급한 것은 여당 내부의 일이라 친다. 그러나 정치를 회화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어서 권위주의 타파라 할 수 없다.

55. 이는 구속을 재판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신병확보 수단보다 범죄에 대한 응징으로 생각해 온 국민의 법 감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 이는 구속을 재판출석을 담보하려는 신병확보 수단보다 범죄에 대한 응징으로 생각해온 국민의 법 감정과 관계있다.

56. 그런 그가 일선에 나오게 됨으로써 향후 한·미, 남북 관계의 변화가 주목된다.

⇒ 그런 그가 일선에 나오게 되어 향후 한·미,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된다.

57. 그러나 국민보호라는 '정부'의 기본 임무상 응당 북한에 요구해야 할 납북자나 국군 포로 문제는 눈을 감았다.

⇒ 그러나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본 임무로 응당 북한에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를 제의하지 않았다.

58. 이처럼 해마다 정치적 극한대립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우리의 나라 살림이 정말 걱정이다.

⇒ 우리 나라 살림은 이처럼 해마다 정치적 극한 대립으로 희생되고 있어 정말 걱정이다.

59. 그 다음으로 경찰은 폭력시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최일선에는 시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의식이 투철한 전문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경찰은 폭력시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최일선에 시위 관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 시켜야한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의식이 투철한 전문 경찰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60. 정부 당국과 정치권은 우리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세력 간 갈등이 공론의 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껴야 한다.

⇒ 정부 당국과 정치권은 우리 사회에서 세력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갈등이 생기는데 이를 공론의 장에서 대화하고 타협하여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껴야 한다.

61. 한문 고전이 지금 우리에게 지식으로 축적되고 의미 있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현토와는 다른, 그야말로 엮기적인 번역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 한문 고전이 지금 우리에게 지식으로 축적되고 의미 있게 소통되려면 지금까지의 현토와 달리 엮기적으로도 번역해야 한다.

62. 기술은 한 명의 천재적 두뇌뿐 아니라 경쟁적 연구자, 기술자들의 '두꺼운 층'

을 필요로 한다.

⇒ 한명의 천재적 두뇌뿐 아니라 경쟁적 연구자, 기술자들의 '두꺼운 층'이 있어야 기술이 발달할 수 있다.

63. 연구지원에는 막대한 자금뿐 아니라 배타적 애국주의에 입각한 기대로부터의 자유로움도 필요하다.

⇒ 연구를 지원할 때는 막대한 자금과 배타적 애국주의에 입각한 기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64. 서점에 들러 책을 브라우징(browsing)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곳을 점령한 자세로 열심히 읽고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당연히 도서관이어야 한다.

⇒ 서점에 들러 책을 브라우징(browsing)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곳을 점령해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도서관으로 가야 한다.

65. 시집이 팔리지 않아 전업시인이 없다시피 하는 나라, 학술서적을 겨우 수백 권 찍어도 계속 재고가 쌓이는 나라를 만든 책임은 공공도서관을 불과 500개도 갖추지 못한 국가와 사회로 귀속돼 마땅하다.

⇒ 시집이 팔리지 않아 전업시인이 없다시피 하고 학술서적을 수백 권 찍어도 계속 재고가 쌓이는 나라를 만든 책임은 공공도서관을 불과 500개도 갖추지 못한 국가와 사회에 있다.

66. 옆집이나 시장 가는 기분으로 나서 맑은 날은 건되 굵은 날도 마을버스 타면 될 정도로 가깝고 편리하고 쾌적한 지역 도서관을 수천 개, 수만 개 만드는 일이 훨씬 더 시급하다.

⇒ 옆집이나 시장에 가는 기분으로 나서 맑은 날은 건되 굵은 날은 마을버스를 타면 될 정도로 가깝고, 편리하고, 쾌적한 지역 도서관을 수천 개, 수만 개 만드는 일이 훨씬 더 시급하다.

2) 논술문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표현

학생들의 논술문에는 영어 번역체의 문장과 한문 투의 문장이 자주 나타나며, 일본어 찌꺼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피동문이나 수동문의 형태가 많다. 문장 속에서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며 외래어를 즐겨 사용하며, 외래어와 우리말을 붙인 어색한 단어들을 자주 쓰고 있다. 어휘를 제대로 골라 써야 하며 조사나 어미를 생략하거나 잘못 붙여 쓰는 경우도 많다. 의미상 중복된 표현을 하고 있는 잘못된 문장도 자주 나타난다.

논술문에서는 준말을 적지 않는 것이 좋다. 준말을 쓰게 되면 구어체의 형태가 많아 논술문이 가볍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그건->그것은', '넌->너는', '맘->마음', '하는 게->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우선시되어야', 영어 번역체의 문장은 삼가는 게 좋다. 예를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러나'나 '그런데' 등으로 바꾸는 게 좋다. 그리고 ~하기 위해서도 영어 번역체이므로 의도나 목적을 가진 '~려면', '~려고'로

바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마련하기 위해->마련하려면’, ‘보존하기 위하여->보존하려고’, ‘유지를 위해서는->유지하려면’, ‘명복을 빌기 위해->명복을 빌려고’,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테러를 방지하려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대책을 마련하려면’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함에 따라’, ‘~에 따라’도 영어 번역체이므로 우리말의 문맥에 맞게 고쳐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세계화가 됨에 따라->세계화가 되면서’로 바뀌 쓰는 것이 좋다. 또 ‘~에 의해’는 영어 ‘by’와 함께 쓰인 번역체이므로 삼가야 한다. 예를 들어 ‘제도에 의해 보장 받다->제도로 보장 받다’, ‘고려에 의해서->고려하여’로 해야 한다.

논술문에서는 감정 주관 선입견을 나타내는 부사나 조사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과연, 정말, 정녕, 아무리, 진정” 등의 부사는 삼가는 것이 좋다. 또 ‘~뿐’, ‘~이야말로’, ‘~조차’, ‘~까지’, ‘~마저’ 등의 조사도 삼가는 게 좋다.

논술문에서는 청유, 감탄, 의문, 비유, 과장, 상징 등의 문장을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살피보자’, ‘~해야 하는가’, ‘~하는 구나’ 등의 표현은 삼가는 게 좋다.

우리말은 능동이나 주동문이 바람직하므로 수동이나 피동, 사동 등은 꼭 필요할 경우에만 쓴다. 예를 들어 ‘연결시키려 한다면->연결하려 한다면’, ‘개발시키다->개발하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논술문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를 줄여 써야 한다. 관형격 조사 ‘의’는 영어나 일본어 번역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말 식으로 바뀌 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케리의 연설날 밤->케리가 연설하는 날 밤’, ‘중간 광고의 도입으로->중간 광고를 도입하여’, ‘대기의 오염으로->대기가 오염되어’, ‘합성 세제의 사용을 줄이고->합성 세제를 줄여 사용하고’, ‘알카에다와의 연계가능성->알카에다와 연계될 가능성’등으로 고쳐 쓴다.

논술문에서는 조사를 생략하거나 어미를 생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 너 사랑해->나는 너를 사랑해’로 써야 한다.

수식어는 피수식어 바로 앞에 써야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된다. 예를 들어 ‘다섯 살 난 이한규 씨의 아들은’은 이한규 씨가 다섯 살인지 아들이 다섯 살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한규 씨의 다섯 살 난 아들은’으로 고쳐 써야 아들이 다섯 살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목적격 조사 ‘~을, ~를, ㄹ’은 그 대상에만 붙인다. 예를 들어 ‘약을 사흘을 먹었다->약을 사흘 동안 먹었다’, ‘학교를 갔더니->학교에 갔더니’, ‘서울을 다녀왔더니->서울에 다녀왔더니’, ‘먹지를 말아라->먹지 말아라’, ‘공부를 하다->공부 하다’, ‘출산을 하다->출산 하다’,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으로 고쳐 써야 한다.

논술문에서는 이중 피동의 표현을 피해야 한다. ‘되어지길->되기를’, ‘보여지다->보이다’, ‘설명되어지다->설명되다’, ‘쓰여 지게->쓰이게’로 고쳐야 한다.

‘~로부터’는 영어의 전치사인 from을 번역한 문장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서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부터 온->미국에서 온’, ‘국민 여론으로부터->국민

여론에서’, ‘공산주의로부터의 현실적 위협이라는 전제가 사라져 버린 지금->공산주의가 현실적으로 위협한다는 전제가 사라져 버린 지금’으로 고쳐 쓰는 게 좋다. ‘북핵으로부터의 위협->북핵의 위협, 북핵이 위협하는’, ‘탄핵으로부터->탄핵에서’로 바꿔 쓰는 것이 좋다.

관형어는 되도록 짧게 쓰고 부사어로 바꿀 수 있으면 쉽게 의미가 전달된다. 예를 들어 ‘사회 구성원들의 꾸준한 선행을 유도 하고->사회 구성원들이 꾸준하게 선행하도록 유도하고’, ‘근본적인 반성을 하여->근본적으로 반성하여’로 고쳐야 한다.

논술문을 쓸 때는 조사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렸다->감기에 걸렸다’, ‘배양을 성공하여->배양에 성공하여’로 고쳐야 한다.

한문투가 아직도 우리 문장에 많이 남아 있는데 논술문에서도 자주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에 비해->~보다’로 바꾸는 것이 좋다.

어려운 한자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차제에->이번 기회에’, ‘유예하다->미루다’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의미가 겹치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중요시 여기다->중요시하다’, ‘작고 사소한 일-> 사소한 일’로 고쳐야 한다.

용어는 학술적으로 인정된 용어를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제 침략기 때’는 ‘일제 강점기’로 고쳐 써야 한다. ‘6·25전쟁’, ‘6·25동란’등은 ‘한국 전쟁’으로 표현해야 한다. 시간과 시각을 구분해서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몇 시간 공부 했어’로 써야 하며 ‘그 시각에 만나자’로 해야 한다. 흔히 ‘우리 나라가 세 번째로 입장하고 있습니다’는 잘못된 표현이므로 ‘우리 나라가 셋째로 입장하고 있습니다’로 해야 한다. 왜냐 하면 세 번 입장한 것이 아니고 셋째로 입장한 것이므로 정확하게 용어를 선택해서 써야 한다.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들’은 아무데나 붙이지 않는다. 수식어에 복수를 나타내는 말이 있거나 서술어에 복수의 의미가 들어있을 때, 단어 자체에 복수의 의미가 있을 때는 ‘들’을 붙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많은 사람이’, ‘나무들이 늘어 서 있다->나무가 늘어서 있다’, ‘우리들이->우리가’, ‘너희들이->너희가’, ‘저희들이->저희가’, ‘국민들이->국민이’로 표현해야 한다.

논술문에서는 높임말을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선생님’->‘교사’, ‘부모님’->‘부모’, ‘대통령께서’->‘대통령이’, ‘누가 돌아가신지’->‘누가 죽은지’로 표현해야 한다.